

보도일시 (인터넷) 2024. 6. 30.(일) 11:00,
(지면) 2024. 7. 1.(월) 조간

배포 2024. 6. 28.(금) 오후

제11차 남인도양수산업협정(SIOFA) 당사국총회, 서울에서 개최

-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남인도양 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논의에 기여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1차 남인도양수산업협정(SIOFA)*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남인도양수산업협정(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

- 남인도양 공해 내 어업 자원(이빨고기, 남방돔돔, 빗금눈돔 등 저서어류)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된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 총 10개국(韓, 日, 中, EU, 호주, 모리셔스, 세이셸, 태국, 프랑스령 영토, 쿡 제도)이 회원국으로 참여중

** 국립수산물과학원 출신 문대연 박사가 의장을 맡아 총회 진행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이번 총회에는 당사국 및 협력적 비당사국, 조업참가국 대표단 외에도 옵서버 기구, 관련 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남인도양의 저서어류*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해양 자원 보호 필요성과 이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SIOFA 관할 수역 내 해저보호구역 관리 강화 방안과 선박 등록부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 저서어류 : 바다·강·하천 등의 바닥에서 주로 생활하는 어종으로, 물속을 헤엄치며 생활하는 표층어류나 고도회유성어류와 대비되며 이빨고기(toothfish), 돔(snapper) 등이 대표적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최근 SIOFA를 비롯한 국제적인 수산물관리 관련 내 논의가 조업 규제를 넘어서 보호구역 설정, 해양생태계 보전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번 총회 의장국으로서 남인도양 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330)
		담당자	사무관	오지영 (044-200-5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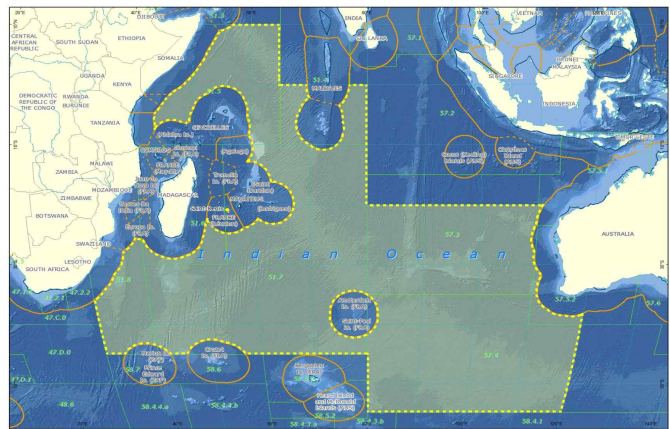
참고1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총회 및 하부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時/所) '24.6.26.(수) ~ 7.5.(금)* /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 * 6.26(수)~28(금) 제8차 이행위원회, 6.29(토) 제2차 어획전략 워크숍, 6.30(일) 휴회, 7.1(월)~5(금) 제11차 당사국총회
- (목적) 남인도양 공해상의 고도회유성어종(다랑어류)를 제외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자원보존관리 논의
- (참석자) SIOFA 회원국(10개국*) 및 NGO
 - * 대한민국, 중국, 호주, 프랑스, 일본, 쿡 아일랜드, 모리셔스, 세이셸, EU, 태국

- SIOFA 설립: 2006.7월 / 발효: 2012.6월 / 우리나라 가입: 2014.10월
- 사무국 : 레위니옹(프랑스령)
- 설립목적: 남인도양 공해상의 고도회유성어종(다랑어류)을 제외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원보존관리
- 회원국: 10개국(한국, 중국, 호주, 프랑스, 일본, 쿡 제도, 모리셔스, 세이셸, EU, 태국)
 - * (협력적 비회원국) 코모로, 인도 (조업 참가국) 대만
- 관리어종 : 이빨고기, 남방돛돔, 빛금눈돔, 오렌지라피 등 저서어류
- 우리나라 조업어종('13년기준) : 이빨고기, 남방돛돔, 빛금눈돔
 - * '24년 현재 조업 척수 없음



<SIOFA 협약수역>

□ 주요 논의내용

- (국별 이행평가) SIOFA 협약 및 보존관리조치에 명시된 의무들에 대한 2023년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의 이행 수준 평가
- (어획전략(HS) 개발) 이빨고기, 오렌지라피 등 SIOFA 주요 어종의 관리 강화를 위한 어획전략 개발논의 진행
- (위원회 재정) 위원회 '25년 예산 및 회원국 분담금 논의 및 채택

참고2

제10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총회 사진



제10차 당사국총회 현장